

“화음 만들 수 있는 피아노 매력에 끌렸죠”

〈73〉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

199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내달 7일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쇼팽 피아노협주곡 2번 협연

“한국 공연 참여 매우 즐거워”

“케빈 케너의 리사이틀은 지성, 상상력,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강력하고, 유연하게 말하는 피아노연주기법을 보여주었다.”(워싱턴 포스트)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Kevin Kenner)가 광주를 찾는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지난 2월 14일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 특별 음악회에서 호흡을 맞추며 진한 여운을 남긴 그는 1990년 국제 쇼팽 콩쿠르 우승(1위 없는 2위)과 폴로네이스 연주상을 수상했고, 그 해 국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오는 4월 7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광주시향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협연을 앞둔 그의 삶과 음악에 관해 아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음악가들과 특별한 콘서트 해오셨죠. 우리나라 관객들과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한국 관객들과의 만남은 제 경력에서 다소 늦게 시작되었죠. 2011년 대관령 평창 음악제에서 정경화의 초청을 받은 후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공연장에서 다양한 관객들을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 음악 애호가들의 개방성과 열정을 사랑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현대 한국 문화에서 크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이곳에서 여행하고 음악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젊은 한국 음악가들의 압도적인 성공은 한국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에서 클래식 음악이 성장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은 무엇이 특별한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이나 가족 모두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텍사스의 농장에서 자랐고, 문화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를 샀고, 우리네 형제와 저는 모두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7살이었을 때로, 유진 프레더(Eugene Prather)와 함께 수업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음표를 불리고, 음악 이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13살이었을 때, 저는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크리스토프 브루자(Krzysztof Brzuza)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쇼팽의 음악을 소개해주었고 제가 17살 때 1980년에 참가했던 국제 쇼팽 콩쿠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성장은 이 단계를 따라 전설적인 미국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Leon Fleisher)와 함께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는 내 음악적 가치를 공식화하고 나만의 피아노적 접근법을 발견하는데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만들어 주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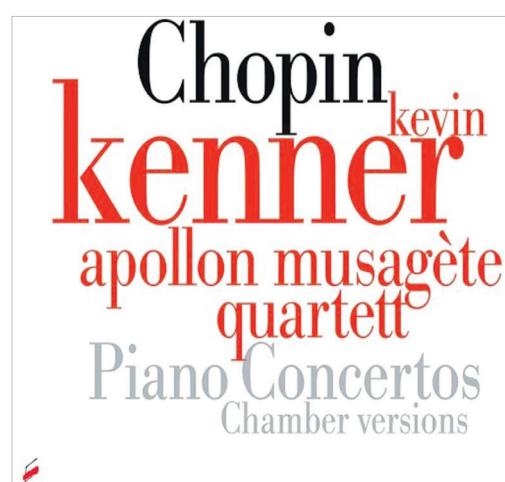
-뛰어난 음악가를 만드는 필수적인 자질은 무엇일까요.

▲주로 귀를 기울이는 귀와 진심으로 반응하는 심장입니다. 아무리 비판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도 민감한 귀와 들리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음악은 생각을 초월하죠. 그것은 상상의 깊은 곳에서 생성되며,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연주자의 영혼을 깊이 관통해야 합니다.

저는 음악을 연구하거나 존경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 삶의 방식에 그대로 스며드는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 때, 그것은 그 음악가의 삶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고, 생성되는 음색은 연주하는 음악가의 영혼 안에서 공명을 찾아야 합니다. 250년 전 C.P.E. 바흐의 말을 회상해볼 수 있습니다. “음악가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청취자들에게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는 모든 애정을 느껴야 한다.” 관객들은



케빈 케너 음반



케빈 케너 쇼팽 협주곡 음반



이러한 연결성과 진정성의 질을 구별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이 단순한 숙련된 음악가와 진정한 위대한 예술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당신이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나요.

▲제 누이 중 한 명은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피아노 밑에 누워서 그 소리들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가 항상 조화의 아름다움에 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다른 대부분의 악기와 달리 화음을 만들 수 있는 악기에 저를 특히 끌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탐색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는 질문입니다. 교육자가 되는 것은 음악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 이상이죠. 그것은 독립의 길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돋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팀을 이뤄 함께 공부하는 음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항상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죠. 그리고 제가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발견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발견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쇼팽 음악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요점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전혀 작곡된 적이 없고, 바로 그 순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쇼팽의 작품들은 명확한 즉흥적 요소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고려해야 할 똑같이 중요한 것은 쇼팽의 고전 미학에 대한 사랑과 낭만주의의 과도함에 대한 그의 혐오입니다. 쇼팽의 음악은 매우 낭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고전적인 신중함과 균형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쇼팽 통역자에게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F 단조 협주곡 2번과 E 단조와 1번 중 어떤 협주곡을 더 선호하세요?

▲그것은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어떤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지 묻는 것과 같아요. 나는 이 협주곡들을 똑같이 그리고 독특하게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정한 표현적 특성에서 상당히 다른데, F 단조는 그가 불과 1년 후에 작곡한 협주곡인 E 단조보다 덜 완전하게 형성된 원시적인 감정의 폭발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감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만약 피아니스트가 안 되셨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첫째 피아니스트, 둘째 소방

관, 셋째 주유소 종업원 순으로 직업을 선호도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 이외에 취미나 관심사가 있나요?

▲물론이죠! 나는 내 관심사에 대해 꽤 다양면에 걸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소설, 역사, 철학, 정치, 시사 등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을 방문하고, 모든 종류의 음악을 감상하고, 특히 재즈 감상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정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내 아이들이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경험을 사랑해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가나 피아니스트가 있나요? 당신은 그들에 대해 어떤 자질을 존경하나요?

▲나는 내 인생의 다른 단계에 있는 다양한 음악가들에게 끌렸습니다. 소년 시절, 아르투르 루빈스테인(Arthur Rubinstein)의 녹음을 듣는 것은 그의 특정한 음악적 지문을 식별하는 음색과 미묘한 루바토에 대한 사랑을 내게 심어주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아르투르 슈나벨(Artur Schnabel)과 나의 멘토가 된 그의 제자 레온 플라이셔의 녹음을 깊이 기교와 소에서 벗어나 음악의 고귀한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나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알프레드 코르토(Alfred Cortot), 이그나시 앤 파데레프스키(Ignacy Jan Paderewski),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등 20세기 초 피아노 세대의 오래된 음반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클래식 음악의 삶에 헌신하고 있는 현세대의 많은 젊은 음악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스타가 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중이 결코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선생님으로서 가끔 마주치는 음악가들이기도 하죠.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음악에 그들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음악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 삶에 영감을 줍니다.

-다음 독주회나 콘서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비엔나의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에서 5월에 있을 다음 공연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쇼팽이 이 협주곡을 작곡했던 것과 비슷한 역사적인 악기(원전악기)로 쇼팽 F 단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자게트 콰르텟(Quatuor Mosaiques)의 멤버들과 함께 실내악 버전으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는 우크라이나 소프라노 올가 파시크니크(Olga Pasichnyk)와 함께 폴란드 전역에서 일련의 콘서트를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내가 지금의 삶을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는 어떨지 추측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어떤 운명, 삶의 흐름이 있다고 믿으며,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하는 일에 정말 만족합니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
원 졸, 5시단·8시단
군악대장·광주시립오
페라단·운영실장·광
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실장·연임·현 국립심
포니오케스트라 공연
기획팀장